가야가 빚은 고령

제306회 정례회 본회의
2025. 6. 30.(월) 10 : 40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김명국 군의원, 성낙철 군의원)

고 령 군
GORYEONG GUN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언제나 더 나은 ‘군민의 삶’ 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의를 대변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군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국 의원님과 **성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관광시설 조성지 악취에 대한 제거 방안 등
악취 민원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공해상 방출이 전면 금지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

육상처리 기반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가축분뇨 악취 문제가 발생,
이는 곧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고령군에는 다산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다수의 돼지사육시설이 소재하고,
언급하신 것처럼 성산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개진면에는 퇴비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군민의 일상 속은 물론,
지역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저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고령군은, 관내 악취 민원 다발 지역인
회천 인근 장기리 일원의 돈사 12호에 대하여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250억의 국비를 확보해
축사 부지를 매입한 후,

「스마트축산 ICT 양돈단지 조성사업」으로

양돈 농가를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이전 대상지의
강력한 주민 반발로 인해 착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리 일원 돈사 12호는
고령의 중심인 대가야읍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농촌의 혐오시설에 대한 정비를 주 목적으로
농식품부 주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하여
지난 2019년부터 축사 이전, 혹은
축사 매입을 통한 폐업을 유도한 곳입니다.

장기리 돈사 1호의 매입으로 인한
악취개선 효과가 미비할 거라 지적하셨는데,
매입한 돈사는 건축된 지 25년 이상의 낙후시설로,
임대 경영되던 돈사입니다.

아무래도,
임대 농가는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돈사에 비해
악취저감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한계가 따릅니다.

마침 해당 돈사의 경우,
임대기한 도래를 앞두고 있었고,
돈사 주인의 매도 의사에 따라 매입하였습니다.('25.3.)

축사를 타인에게 재임대할 시,
악취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입할 수 있으나,
축산농가가 계속 영업을 유지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폐업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돈사의 매도 의사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여
추가 매입을 통한 관할 범위를 넓혀가는 반면,

영업 유지 의사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행함으로써
작은 효과일지언정, 악취문제를 차츰 개선해 나가고,
단계적으로 대가야읍 외 지역으로 확대해갈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가능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낙동강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등
우리군 역점 수변관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개경포 인근지역으로 검토를 요청하신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법률' 제정에 따른
농식품부 정책 방향에 따라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8개 읍면의 유해시설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유해성이 심각하고,
철거가 시급한 정비 대상지구를 설정하여
2027년 농촌협약 공모(국비 300억원)를 진행할 계획이며,

말씀하신 개진면 소재의 돈사 및 퇴비공장 등
정비 대상시설을 면밀히 조사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성산면 소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는
2004년 최초 신고 이후,
2021년 6월경 현재 부지로 신축 이전하여

신규 설비와 밀폐구조 강화로
악취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기대에는 다소 못미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군은 악취저감기술지원을 받았으며,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퇴비 교반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악취물질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외부로 확산되는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건물 내 밀폐 운영되고,
악취물질을 포집 후
악취 저감시설로 유입하여 처리되고 있음에도
그 효과는 미흡하여 난관에 봉착했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성산면은 우리군의 관문으로,
고령의 첫인상에 큰 영향을 줄 지역임이 분명하므로
고령군에서는 악취저감기술지원 결과를 참고하여
악취 저감 주요대책을 수립,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 밀폐구조 강화를 위한
  포위식 후드・자동식 출입문 설치, 외벽 보강

▲ 직접적인 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발효액 살포, 세정탑 주·야간 지속 가동과
  주기적인 세정수(악취물질 흡수액) 교체
▲ 담당공무원 수시 현장 확인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14건에 달했던 성산면 악취 불편 민원은
2025년 현재, 단 3건만이 접수되어 확연히 줄었으며,
지속적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이면서
악취 저감 및 민원발생 축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유산의 도시로 거듭나고,
대가야 고도로 인정받은 역사문화관광도시 고령은
그에 걸맞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무엇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여건을 두루 갖추기 위해
다각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중심부, 주요 관광지와 계획 중인 관광거점까지
전반적인 악취 저감 및 개선을 위한
돈·축사 관리, 시설개선, 미생물 활용 등
중·단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지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악취가 더 심한
돈사, 퇴비공장 등을 대상으로는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 악취를 포집하여
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 15배수)을 초과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돈사 밀집지역
대가야읍(장기리), 개진면(반운리) 등을 대상으로는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악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악취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가면서
악취 저감사업을 꾸준히 병행하도록 유도하는 등

농가의 협조와 노력,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로
악취 저감을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나아가 지역의 공존과 상생의 가치까지 담아낸
진정한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군립요양병원 관련,
군 직영의 문제점과 대책, 향후 운영 방식 등
운영 정상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은 2004년 개원하여
영암재단 고령영생병원에서 20년간 위탁 운영하던 중,
경영난을 이유로 재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고령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87병상으로, 병상가동율 90% 수준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70% 이상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었거나 연고를 가진 자로서,
본 요양병원은
주민의 의료 편의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9월 이후 현시점까지
군 직영으로 약 10개월간 운영을 이어왔으며,
직영에 따른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한 재정 부분에서는 일부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어려움이나 운영 적자로 인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것은
의료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고령군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의 주인은 고령군민이며,
지역의 존립 차원에서 고려하더라도
필수 공공의료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의 수입은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액과
본인 부담금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출에서는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2008년부터 요양병원 기본 입원료와
근로자 최저 시급이 대폭 상승하면서
현재의 요양병원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경비 상승세를 감당하기는 버거운 현실이며,

또한, 지리적 여건 및 상대적 저임금으로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요양병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입원 환자대비 의료인 적정성 평가(연 1회),
공공의료기관 운영평가(격년 1회),
요양병원 인증 평가(3주기) 등
수시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료 삭감 등 페널티를 적용중입니다.

개원 20년을 맞은 고령군립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의 기본 시설인 소독실, 감염실, 당직실 등
필수시설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입원환자의 복지와 직결되는
침대 및 상두대, 엘리베이터 등이 노후화 되었으며,
와상환자 피난시설 보완, 산소 공급시설 추가 설치,
집단급식소 환기 시설개선이 시급한 점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확인된바,

입원환자의 안락한 내원 환경 조성과
근무자의 능률적인 근로 여건 등
모두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령군에서는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고,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2024년 치매전문병동 기능보강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2025년 공모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결과,
치매전문병동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시행할 시
현실적인 경영 개선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심 끝에 본 사업비를 반납키로 하였습니다.

영생병원과 통합 운영된
고령군립요양병원을 증축하지 않고,
독립된 병원으로서 기본적인 시설 개보수 등
일부 시설 리모델링 및 필수시설을 확충해 운영하는
또 다른 방안이 있으나, 이 경우,
병상수 축소가 불가피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고령군에서 직영을 지속할 경우에는
현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부담해야 하며,

의료기관 전문경영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 대비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먼저 독립된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운영에 따른 예상 수입과 지출의 금액을 평가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는 위탁 사업으로
고령군립요양병원을 지속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령군민이 곧, 고령군이기에
군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 보장과
고령군은 지역과 군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의료공백의 발생을 일순간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김명국 의원님과 **성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담당부서를 통한 추가 설명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고령군 발전에 힘을 보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활력 넘치고, 보다 경쟁력 있는
‘군민이 행복한 고령’에 다가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령군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